

K리그1 전북현대, 창단 이래 첫 매진

31일 울산HD와 홈경기
판매 가능 좌석 모두 판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울산 HD와의 현대가 더비를 앞두고 창단 이래 첫 매진을 달성했다.

전북은 31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7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현재 전북은 승점 32(9승 5무 2패)로 1위, 울산은 승점 29(8승 5무 5패)로 3위다.

현대가 더비가 펼쳐질 전주성(전주월드컵경기장 애칭)에 만원 관중이 들어간다.

전북은 "29일 오후 12시 기준 경기 판매 가능 좌석인 3만2560석(시즌 티켓 포함)이 모두 판매됐다"며 매진을 알렸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선수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 1994년 창단 이후 30년 만에 달성한 첫 매진 기록이자,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달성한 3만 관중 돌파 기록

이다.
올 시즌 거스 포엣 감독이 새로 부임한 전북이 옛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

고 있다.

전북은 리그 12경기 무패(8승 4무)와 함께 선두를 꿰차고, 리그 최다 득점(24득점)과 최소 실점(11실점)을 기록 중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 속에 최대 라이벌인 울산을 만나 창단 첫 매진에 성공했다.

전북은 역대급 관중이 방문하는 만큼, 도심과 경기장을 잇는 '1994버스'를 15대까지 증편하는 등 팬들 편의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한다.

과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활약하며 K리그 우승(4회)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우승(1회)을 이뤘고, K리그1 최우수선수(MVP)와 K리그1 베스트11 3회에 올랐던 축구 국가대표 이재성(마인츠)이 팬 사인회를 실시한다. /뉴시스

새만금의 바다, 세계가 탄다

국제요트대회, 내달 5~8일 부안 격포항 일대서
한국·중국·대만 등 13개국 300여명 선수 참가
전북자치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거점 육성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10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북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스포츠 행사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13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서해를 무대로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인쇼어(INSHORE)' 코스와 '오프쇼어(OFFSHORE)' 코스로 나뉘어, 격포항을 출발해 위도 및 고군산군도 인근을 일주하는 스틸 넘치는 요트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관람객들은 격포항 남측 방파제 관람석과 함께 관람장에 승선해 바다 위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전북자치도는 참가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양경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장비 비치, 구명조끼 착용, 구조정 해상 배치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병행한다.

또한 사진촬영 이벤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새만금 일대의 해양레저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과 연계해 전북을 대한민국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부안의 천혜 해양환경과 글로벌 요트대회가 어우러져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해양축제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행사를 통해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전북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첫째 날인 5일 격포항 요트 계류장을 개방해 1일차 경기가 시작되며, 6일 오후 6시에는 격포항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이 진행되고 8일에는 시상식과 폐회식이 치러진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국제 스포츠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국내외 스포츠 분야 교수, 연구원, 현장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고도화

전북자치도, 국제 스포츠 전문가들과 자문회의 열고 머리 맞대
글로벌 스포츠 동향 공유·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29일 도청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국제 스포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국내외 스포츠 분야 교수, 연구원, 현장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연구원 정은천 연구위원이 전주 올림픽 유치 추진 경과

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세계 스포츠계의 주요 흐름과 유치 과정에서의 기회요인을 공유하고, 전주의 문화적·경제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유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제스포츠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유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전주가 가진 지역 자산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자문단과 격월 정기회의와 서면자문을 병행하며 올림픽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향후 자문 내용은 국제스포츠 포럼 추진 전략, 경쟁 도시의 동향 및 대응, 국제회의 및 대회 유치 방안 등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영식 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국제스포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전주만의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세계스포츠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가 새로운 올림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서 '펜싱 대격돌'... 태극마크 주인공은?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익산 실내체육관·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
내달 5일까지 선수·임원 등 1500여명 참가... 익산시청 펜싱팀도 '출사표'

대한민국 정상급 펜싱 선수들이 익산에서 태극마크를 향한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익산시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익산시 실내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펜싱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사브르와 에페, 플뢰레 등 펜싱 전 종목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중요한 자리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종목별 일정은 △5월 30~31일 남·녀 사브르 △6월 1~2일 남·녀 에페 △6월 4~5일 남·녀 플뢰레 순으로 치러진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익산시 실내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 (사진=익산시청 제공)

월 3일은 경기가 중단된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도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남자 에페에는 권영준과 정병찬, 양운진, 김종준, 김찬우 선수가, 여자 사브르에는 최신희와 조예원, 최수빈, 최지영 선수가 출전해 실력을 선보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익산에서 미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익산시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Pianist 박상욱
Sangwook-Park

Cellist 박건우
Gunwoo-Park

Violinist 김지윤
Gyoon-Kim

사단법인더문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페스티벌 2025

2025. 5. 31토 5:00PM

문화공간 이룸

문의: 051-226-5328 | 후원: 익산시청, 문화재단, 후원기업

QR 코드: 메대 바로가기